

# INEX

HOUSING MEMBERSHIP MAGAZINE 2006 NO.3 VOL.10

SPECIAL THEME **AUSTRIA** • **IDENTITY** austria in music, classic to modernity, austrian life style, hallstatt • **HOUSE WITH PEOPLE** haus wakolbinger, sargfabrik, versatile design, haus anita, steinhaus, haus neumann, haus zenzbauer • **CULTURE WITH SPACE** kunsthau, rooms in schonbrunn, metalsmith, gabriettes, charity, good house

aesthetic evolution

# COMFORTABLE RETIREMENT

노부부를 품어주는 품만한 햇살 같은 집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일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으로 느긋한 삶이 아닐 수 없다. 꼭 필요한 것  
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 더 바랄 게 없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환한 햇살 아래 환한  
기운이 충만한 집에서 둘이 마주앉아 친구처럼  
두런두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노이만  
부부는 진정 감사하게 생각한다.



●●● 비엔나 북쪽 근교 니더오스터라이히 지방의 코르노  
이부르크 마을, 상록수들로 담을 대신한 집들이 가지런히 이어  
진 작은 길 가장자리에 위치한 노이만 부부 Otto Neumann(67),  
Heidlore Neumann(64)의 집은 흰색 박스 형태여서 나뭇잎들  
사이로 금세 눈에 띄었다. 뒤쪽으로 난 현관문을 지나니 특트  
인 거실과 바로 이어진 풀이 한눈에 들어온다. 햇빛을 받아 반



1 2

1. 나무로 둘러싸인 정원 한쪽에서 노이만 부부가 포즈를 취했다. 2. 두 개의 직육면체가 살짝 겹친 모양을 한 집이 햇살 아래 물과 함께 환하다.

색이는 물이 투명해 보이는 풀을 지나 마당으로 나가니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정원이 아주 넓어서 하얀 네모 상자의 집이 '보석함'이라는 애칭을 가진 이유를 단박에 알 만했다.

**같이 비워서 가벼운 집** "돌 것도 없고 돌 필요도 없어서 집을 최소한의 크기로 하고 모양도 단순하게 했지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집을 바라

보면 편하게 느껴져요. 아들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적절한 집을 지어준 겁니다. 이웃들이 우리더러 보석함에 산다고 부러워합니다." 부부는 흔들의 자에 앉아 천천히 얘기를 들려주었다.

노이만은 산업용 기계 제작 회사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이고 부인 하 이텔로레 역시 같은 직종의 회사에서 근무했다. 정년 퇴직 후 편안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새 집을 지어 이사 온 지는 삼 년 되었다. "빈 시



내에서 살던 동안에도 이곳에 자주 왔지요.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들이 생기면서 주말과 휴가 때 지낼 집을 내가 직접 지었지요. 바로 저기예요.”라며, 마당 끄트머리 쪽을 가리키는 노이만의 표정이 우쭐하다.

노이만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잔디 무성했던 빈 터에 게스트 하우스를 스스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휴가 때마다 와서는 나무집을 지었다고 한다. 넓은 잔디밭과 넉넉한 과실수들이 둘러싼 마당 한켠에 지금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무집은 작지만 부부와 아이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동화 속의 성인 썸이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자신들은 은퇴하게 되자 부부는 도시를 떠나 살기로 계획하고 지금의 집을 짓게 된다. 은퇴 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된 부부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집을 구상한다. 그 결과 두 개의 직육면체가 살짝 겹친 모양을 한 집이 탄생했는데, 1층엔 침실과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고 지하에는 손님방과 노이만의 작업실이 있다. 너른 거실은 아내 하이델로레가 좋아하는 공간이고, 지하의 작업실은 노이만의 공간이다. 엔지니어인 노이만은 스포츠카, 비행기, 오토바이 등 크고 작은 모델들을 조립하고 제작하는 취미를 갖고 있다. 지금은 작은 모형 열차와 철로를 제작중이다. “그 방은 남편의 놀이터입니다. 남편이 평생 꿈꾸던 방이죠.” 아내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미소 짓는다.

**지중해의 햇빛 같은** 흰색으로 된 걸 마감의 재질이 언뜻 스틸처럼 보이는 이 집은 알고 보면 주문 제작한 판넬을 주로 쓴 목조 건물이다. 코팅 처리된 흰색 종이판으로 전체를 마감했는데, 그 질감이나 느낌이 무광의 스틸 같아서 세련되어 보인다. 실내도 흰색으로 톤을 맞추었다. 곧 크로아티아 산 흰색 석회석을 실내 바닥과 테라스에 깔았고 부엌, 진열장, 욕실 등의 벽과 가구도 흰색 라커로 마감 처리했다. 전체가 흰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무 판넬에 둘러싸인 수영장을 테라스로 연결하여 거실 안까지



그 전망을 끌어들이므로써, 전체적으로는 지중해의 휴양지에 있는 별장 같은 은산뜻한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

이 집을 디자인하고 건축한 사람은 작은 아들인 미하엘 Ach. D. Michael Neumann(33)이다. 아버지로부터 숨씨를 물려받았는지, 그는 오늘날 오스트리아 건축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빈 국립공대 건축과에서 8년간에 걸쳐 까다로운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1년에 28살의 어린 나이로 동료 두 명과 함께 오에게 OEG란 팀을 이뤄 활동했고, 2003년부터 신건축 Synn Architekten이라는 팀을 이끌면서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이 오래 전부터 원했던 공간을 형상화했지요. 간단한 형태를 취해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원을 남으로 향하게 하고 겨울에 부는 북서풍을 막기 위해 L자형으로 앉혔지요. 테라스로 연결된 수영장을 둔 건 가족 모두의 요구였습니다. 집을 짓기까지 가족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고 서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저도 기쁩니다.”

집에서 중요한 요소가 ‘빛’이라며, 지하 공간에 충분한 채광을 고려한 아들의 꼼꼼함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노이만은 직접 차를 끓여서 아들과 아내, 그리고 취재팀에게 일일이 따라주었다. 그러는 동안 부인은 앨범을 여러 권 꺼내 와서 펼쳐 보이며 자랑스런 표정이다. 거기엔 처음 땅을 고르고 기초를 세우고 풀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벽을 올리고 칠하는 등의 장면들이 죽 이어져 있다. 눈에 덮인 공사중의 집도 이채로웠고, 더 재미있는 건 집은 아직 덜 지어졌는데 풀이 먼저 완성되어 가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다음에 올 때는 수영복을 챙겨 오라며 크게 웃는 가족들은 앞으로도 앨범을 채워갈 많은 장면들을 이 집에서 만들어갈 것이다. 그 즐거운 그림들이 벌써 눈에 선하다.

- 1 2 4 1. 침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마감하여 노부부가 밝은 기분을 갖게 했다. 2. 현관에서 거실로 통하는 복도, 그림들과 장식들에 붉은색으로 액센트를 주어 단조로움을 깼다. 3. 이 집에서 제일 큰 공간인 거실, 흰색 석회석으로 마감된 바닥이 시원하게 보인다. 4. 노이만 부부가 집을 디자인해준 건축가 아들인 미하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